

청동기시대 한·일 농경문화의 교류에 대한 토론문

배 진 성
부산대학교

『韓半島 南部 早・前期～中期 聚落의 變遷과 農耕』에 대한 질의

1. 조기와 전기의 토기양식을 모두 외래계로 인식하고 있는데, 조기는 그렇다하더라도 전기의 토기는 재지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전기 무문토기의 출발은 서북·동북지역 토기의 영향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전개된 가락동·역삼동·혼암리식토기는 남한 재지의 토기양식이라는 관점에 보아야 하지 않을까. 조기의 각목돌대문토기 및 요동계이중구연토기 등과는 다르게 보고 싶다.

2. 화전에 대한 여러 견해를 소개하고 있는데, 발표자의 관점과 근거는 어떠한가. 『한국 청동기시대 농경의 개시 및 전개』(윤호필)라는 발표문에는 청동기시대의 화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두 분에 대한 공통 질의이다.

3. 이 발표문에는 전반적으로 기존 견해 및 인식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있다. 그 가운데 송국리단계의 농업집약화 및 수도작 중시에 대해서도 실제 적극적인 자료가 많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 청동기시대 농경의 개시 및 전개』(윤호필)에서는 송국리문화의 수도작이 사회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 역시 공통 질의이다.

4. 발표문과 같이 농업집약화·복합사회라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송국리단계에 대해 앞으로 실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내용 가운데 한 가지를 지적하자면, 분묘를 통해 위계를 구분한 기존의 연구가 송국리단계를 “마치 중앙집권화된 신분중심 사회로까지 볼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너무 과장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선사시대인 한반도의 청동기시대에 ‘중앙집권’이라니.... 동검이 고대국가의 상징이라는 말인가. ‘신분중심사회’라는 용어도 班常의 법도를 중시 하던 조선시대에나 어울린다.

『靑銅器時代 遺物과 社會의 變遷』에 대한 질의

1. 일반적으로 청동기시대의 시작부터 농경사회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발표문에서는 생산과 유통, 지식묘의 축조, 대규모 취락의 전개 등을 통해 전기후반부터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초기)농경사회로 보고 있다. 전기후반을 시기구분상 하나의 획기로 보는 토론자의 관점과도 상통한다. 그렇다면 초기~전기전반은 농경사회로 부를 수 없는지, 아니면 전기후반과는 구분되는 의미에서의 농경사회로 부를 수 있는가. 초기~전기전반의 무문토기사회는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좋은가.

2. 마제석검은 전기전반에는 주거지에서 출토되다가 농경사회적인 모습이 강화되는 전기후반에 분묘의 부장품으로 제작되었다면, 석검은 처음에는 실용품이었다가 이후에 상징성이 강한 것으로 그 성격이 바뀐 것으로 된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석검은 요령식동검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것인데, 이전에 발표된 골검과의 관련성도 포함하여 석검의 출현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 싶다.

3. 송국리문화의 대외성이 강조되어 있다. 초기의 각목돌대문토기, 전기의 횡대구획문토기 및 청원 대울리유적의 환호 등에서 초기~전기에도 외래의 영향은 있어 왔고, 그것이 무문토기사회의 발달과 전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발표문에 있는 외래적 요소를 송국리문화의 전개라는 관점에서 본 것인가, 아니면 송국리문화의 발생과 관련한 계통이라는 관점에서는 본 것인가.

『한국 청동기시대 농경의 개시 및 전개』에 대한 질의

1. 시대적 전환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의 문제이다. ‘2. 청동기시대 전기의 농경’에서 “...어느 정도 신석기시대의 문화전통이 청동기시대까지 이어졌다... 이 중 농경문화는 신석기시대 생계경제의 한 축으로서... 청동기시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라고 하여, 농경(문화)에 있어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유사성·연결성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다.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개시기를 인식하는데 있어 외적영향보다 내적발전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 성과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재배 작물의 종류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해서 전통의 연결성이 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재배의 기술·도구·사회적 발달의 정도 등 다방면을 고려해야 하며, 농경도구의 형태와 조합을 신석기시대와 비슷하게 보

는 점도 의문스럽다. 신석기시대와 무관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서 각목돌대문토기 및 공반 유물에서 연결성 보다는 단절성이 더 강하지 않은가.

2. 청동기시대 전기의 개별 주거에 설치된 저장시설은 ‘가족중심의 생산활동’을 의미한다고 하며, 신석기시대의 생계경제와도 유사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동기시대는 대규모 취락을 통해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모습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대평리의 대규모 밭은 가족이 아닌 취락 중심의 생산시설일 것이다.

3. 반월형석도의 감소=밭농사의 비중 감소라는데, 兩者의 상관성이 곧바로 이해되지 않는다. 반월형석도는 꼭 그렇게 한정되지는 않았겠지만 일반적으로 벼의 이삭을 따는 도구로 알려져 있다. 밭작물의 수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내용 다음 페이지에는 청동기시대에는 논보다 밭의 조성이 활발하였다는 내용과도 상반된다.

그리고 밭 유구에서 이랑의 길이가 길고 정연하기 때문에 일정한 축조플랜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랑과 축조플랜의 관계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